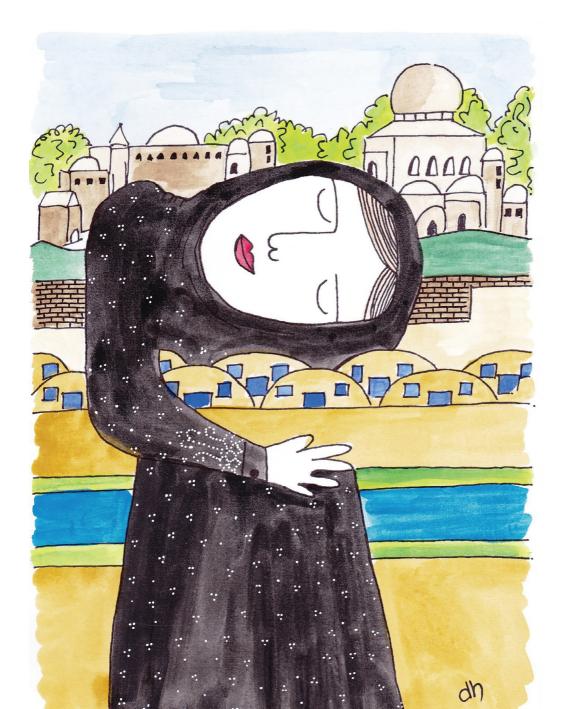
# 국경없는의사회



# MÉDECINS SANS FRONTIÈRES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산민을 향한 구호 활동

있을까요?

02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가을 2018 03 MEDECINS SANS FRONTIERES KOREA | AUTUMN 2018 03

#### 목차

- 03 난민 아빠들이 마주하는 흔한 문제들
- 05 길 위에 선 그녀에게 필요한 것
- 06 세계 최대 난민캠프에서 진행하는 아동 예방접종
- 08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중해에 배를 띄운 까닭은
- 10 이라크에서 만난 실향민들
- 12 예멘,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 13 후원기업 소식
- 14 후원자 이야기
- 15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이벤트&캠페인

#### 표지사진

#### 옛 모술을 그리며

심리학자 다이앤 한나는 실향민들이 전쟁 전의 삶을 말하는 동안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이 그림을 통해 과거 모술에서의 추억을 두 팔에 소중히 감싸고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나의 다른 그림은 10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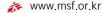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9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 facebook.com/msfkorea
- @msfkorea
- @msfkorea
- youtube.com/msfkorea
- ◎국경없는의사회
- blog.naver.com/msfkr

발행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발행일

2018년 10월

발행인

티에리 코펜스

편집기획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커뮤니케이션국

디자인

Slowalk

###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무려 6850만 명이 세계 곳곳에서 어쩔 수 없이 피난 중이며 이 가운데 85%는 저소득 국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자비한 폭격, 내전, 군의 침입, 폭력 조직,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상황이 초래하는 극도의 위험을 피해 집을 떠났습니다.

난민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존재할 뿐입니다.

고향에서 내몰린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도 고군분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료, 깨끗한 물, 거처, 신변 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위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피난처를 찾아갑니다.

난민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은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주의 의료 활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정성, 중립성, 의료 윤리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들, 그들이 떠나는 이유, 이에 대응해 국경없는의사회가 실시하는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중해 중부에서 이주민 수색, 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피난 중인 로힝야족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2200만여 명에게 구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에서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난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피난민들이 있는 장소에 관계없이, 또한 피난민들이 이동하는 중에도 치료를 제공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에 리 코센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 난민 아빠들이 마주하는 흔한 문제들

#### 01 | 부족한 거처



계속된 분쟁으로 황폐해진 남수단. 한 아빠가 그의 집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에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진은 아이 넷을 비롯한 여덟 명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의 내부 모습으로 커튼 뒤는 식사 준비를 하는 곳이다. 빈약한 거처들은 우기 동안 보호막 역할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내부는 온통 진흙투성이였다. ©Raul Fernandez Sanchez/MSF

마땅한 거처가 없다는 것은 집을 떠난 많은 아빠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자녀 4명을 둔 시리아 출신 난민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향 마을까지 분 쟁이 번지자 아이들이 무서워했다고 설명했습 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라크로 떠나 결국 다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모두 추위 때문에 몸이 아픕니다. 우리도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서류를 작성해 등록했고, 작성한 서류는 다 잘 챙겨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국과 지원 단체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02 | 폭력의 위험

피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빠들은 늘어난 폭력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남수단에서 피난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들이 며, 이들 중 다수는 치안 불안 속에 남편과 형제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뒤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웃해 있는 콩고민주공화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스태 프 불람바 카세 조수에는 고향 키찬가에서 분쟁이 발발하자 아내에게 갓 난아기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는 보건 홍보단원으로서 뒤에 남아 국경없는의사회 일을 지속하면서 전쟁의 여파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을이 전부 불탔어요. 무너지던 우리 집 모습이 생생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심리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체중도 줄었거든요. 총소리가 나는 것 같아 한밤중에 벌떡벌떡 깨기도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보건 홍보단원 불람바 카세 조수에 ©Sara Creta/MSF

04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가을 2018 MEDECINS SANS FRONTIERES KOREA | AUTUMN 2018 0

#### 03 | 착취와 학대



알리와 그의 아들 무스타파와 함두 ©Albert Masias/MSF

난민이나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취 와 학대에 특히 취약합니다.

현재 리비아의 경우 이주민·난민 구금 시스템 속에 납치, 고문, 착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구 금 센터들은 인신매매로 이익을 취하는 민병대 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이 치료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임 의로 구금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보내 달라고 친척들에게 전화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돈이 올 때까지 구타를 당합니다. 석방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설 현장이나 농지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는 리비아에 살았지만 상황이 너무 불안해져 리비아를 탈출해 위험천만한 바다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것밖에는 리비아를 탈출할 방법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고무보트에 탔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후 물이 새기 시작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트 한가운데 타고 있던 알리의 아내는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리비아로 송환된 알리와 아들들은 납치를 당해 한 달간 붙잡혀 있었습니다. 알리는 구금돼 있 던 건물 유리창을 깨고 나와 아들들과 함께 간 신히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알리 가족은 최대한 빨리 리비아를 탈출하기 위해 또다시 허술하고 과밀한 고무보트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 번째 횡단 때는 국경없는의사회 구조선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 04 | 의료 접근성 부족

파상풍은 예방접종 덕분에 사실상 사라진 질병 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와 아빠가 살고 있 는 미얀마 북서쪽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후반, 소녀의 가족을 비롯한 무려 6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은 전례 없는 폭력을 피해 미얀 마를 탈출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 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만나는 수많은 엄마, 아빠들처럼 이 소녀의 아버지도 그저 딸 곁을 지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에 걸려 벌써 몇 주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진료소에 왔을 당시, 아이는 척추 근육 경련, 개구 장애(턱이 벌어지지 않는 장애), 뻣뻣한 팔다리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이언 크로스는 아이가 눈물이 가득 고인 아빠에게 안아달라고 했던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 통스러운 경련이 또 시작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이를 들어 아버지 무릎에 올려놓고, 아이를 꼭 안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리를 나서면서, 아빠 두 팔에 안긴 어린 소녀를 다시 돌아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60도나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근육 경련이 줄어든 겁니다. 턱도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아빠를 향해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사랑은 약은 아 닐지언정 그와 같은 효험을 발휘합니다."



파상풍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와 그 아빠 ©lan Cross/MS

### 길 위에 선 그녀에게 필요한 것

#### 국경없는의사회 여성 보건 자문 | 마거릿 벨

새해 첫날, 라히마는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은 라히마가 임신 중 치명적인 합병증인 자간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의 응급 의료 지원을 통해, 라히마는 무사히 새 생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히마는 폭력과 박해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6800만 명 중 1명입니다. 현대사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피난 중이며, 전체 피난민 중 절반가량은 여성입니다.

#### 피난 여성들의 건강 문제

다수의 난민 여성들은 분쟁 때문에 피난길에 오릅니다. 전쟁은 의료 기반 시설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여성들은 피난길에 오르기 전부터 의료 지 원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 피난길을 떠나면 의료 서비스 부족, 먼 거리, 교 통 장애, 금전적 여력 부족 등으로 의료 지원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 다. 치안 불안이 만연해 의료 지원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신은 모든 여성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피난 중인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피난 여성들은 유산과 조산에 더 취약한데, 산전 의료, 응급 산과 진료, 안전한 출산 환경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피난 상황에 서 출산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난민 여성들은 좀 더 삶이 안정적일 때까지 임신을 미루길 원하지만, 가족 계획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임신이 되고 위험한 낙태를 시도할 위험이 커집니다.

#### 성폭력에 노출된 난민 여성들

분쟁 혹은 이주 상황에 놓인 여성과 소녀들은 성폭력에 취약하고, 특히 혼자 이동하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성폭력은 분쟁 당사자들이 공동체를 응징하거나 통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밀수업자들은 식량 등 필수품을 대가로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성폭력은 HIV 등의 성매개 감염병, 원치 않는 임신,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긴급상황입니다.



매트리스를 머리에 얹은 콩고 여성이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우간다로 갈 배에 탑승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John Wessels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성폭력에 노출된 수많은 피난민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HIV 검사를 받으러 우리 진료소에 찾아왔는데, 앞서 두 아이를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픔이 있던 터라 배속의 아이는 꼭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정기적으로 산전 진료를 받았지만 사실 그분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의 심리적 지지였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은 국경없는의사회가 피난민 여성, 소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또 다른 주요 활동입니다. 이들은 극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에 노출되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난민 정착촌의 불확실한 삶도 스트레스 유발 요인입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 여성들은 가진 것이나 지원이 희박한 낯선 환경 속에서 홀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챙기느라 분주한 나머지 자신의 건강, 특히 정신건강은 뒷전으로 미루기도합니다.

최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피난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이주민, 망명 신청 자, 난민을 대상으로 한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활동도 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 남수단 등 이들의 본국에서, 그리스, 멕시코 등 경유국가에서, 요르단, 탄자니아 등 정착해 있는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고통을 덜어주고, 안전한 곳을 찾아나선 이들이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가을 2018 MEDECINS SANS FRONTIERES KOREA | AUTUMN 2018

# 세계 최대 난민캠프에서 진행하는 아동 예방접종



잠톨리 난민캠프에서 음식 배급을 기다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 사이에 할리마와 그 어머니가 있다. @Pablo Tosco/Angular

최근 방글라데시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나타샤 르어(Natasha Lewer)가 쿠투팔롱 난민캠프에서 진행된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활동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로힝야 난민들이 모여 있는 쿠투팔롱 캠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예방접종 활동과 더불어, 지난 몇 달간 콜레라, 디프테리아,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3월 후반 어느 날, 아침 8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쿠투팔롱의 국경없는의사회 병원 문 앞에 모였 습니다. 모두 로힝야족 출신 자원봉사자들입니 다. 방글라데시 동부 난민캠프 중 가장 큰 쿠투 팔롱 캠프(30만 명 거주)에서 진행하던 대규모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캠페인의 마지막 날 활동 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사 크리시가 헐렁한 전통복 차림으로 서류철과 가방을 들고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2분 만에 사람들은 릭쇼(인력거)를 타고 화물차 에 짐을 가득 싣고 쿠투팔롱 임시 캠프 입구로 이어지는 분주한 도로로 나섰습니다. 이 캠프 안 에는 넓게 펼쳐진 언덕 곳곳에 천막들이 빽빽하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크리시와 야외 활동팀은 도보로 7시간 걸리는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 르내리고, 대나무 다리들을 건너 캠프 곳곳을 다 녀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무덥고 건조한 시기에

#### 전염병 재발 예방하기

2017년 12월 여러 캠프에서 디프테리아가 창궐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대규모 발병이었습니다.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디프테 리아는 과밀한 캠프 곳곳에 빠르게 퍼져 나가. 사람들 무리 한가운데서 국경없는의사회 간호 │ 총 6천 명이 감염되었고 40명이 숨졌으며 사망

자 다수는 아동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보건부. 세계보건기구(WHO), 국경없는의사회가 함께 기획한 이번 예방접종 캠페인은 그러한 질병 창 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부는 예방접종 담당자 지원, 콜트체인(백신 저온 보관) 관리, 백신 배급 등 캠페인의 실질적 인 부분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WHO는 훈련과 자료 수집, 미접종 지역 알림 등을 지원했습니 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물류 및 추가 예방접종팀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동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 계획 수립을 맡았습니다.

캠프 곳곳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노란 깃발이 꽂혀 있는 62개 접종처 중 몇몇 곳 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접종처에서는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활동하며, 캠페인 마지막 날 각 팀 의 목표는 아동 350~400명을 예방접종하는 것 으로, 총 25,000명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입니

#### 신뢰 쌓기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 대다수는 미얀 마에서 기본적인 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예 방접종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인지 주삿바늘이 어린아이 피부에 문신 자국을 남길 거라는 등 갖가지 루머가 돌기도 합 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 잘못된 정보와 불신이 존재 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 경없는의사회는 로힝야족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두 캠프에 살고 있어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문화, 관습, 사고방식을 고려합니다. 사람들 편에 서서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함께 논의한 뒤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 - 자원봉사자 감독 루훌

루훌은 동료 자원봉사자 자키르, 샴슈 알람과 함 께 이맘(이슬람 성직자) 대표를 시작으로 여러 종교 지도자 및 공동체 지도자들을 찾아가 예방 접종 캠페인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그분들의 인 정이 있어야만 캠프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방접 종처로 보낼 테니까요.

요즘은 기온이 32도에서 40도까지 오르락내리 락하기 때문에 한낮에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게 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이 진료소에서 아이들이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Natasha Lewer/MSF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확성 기를 들고 마을을 다닙니다. 아이들을 디프테리 아에 걸리지 않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큰 소리로 알려 주는 거죠.

그 옆 언덕 꼭대기에 있는 오두막에서 알리프와 사르민은 예방접종 카드를 확인하고 줄 서 있는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 이들은 주사 맞을 때 언니, 누나 무릎 위에서 몸 부림치며 울부짖지만, 그래도 좀 큰 아이들은 차 분하게 주사를 맞고 조그만 손가락을 내밀어 검 은색 펜으로 손톱에 체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생후 6주~15세의 모든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큰 여자아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예방접종처로 나 오길 꺼리기 때문에, 사르민과 같은 여성 접종 담당자가 10대 여자아이들을 한 집에 따로 모아 예방접종을 합니다.

#### 예방접종 활동의 성과

"저는 캠프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예방접종처를 살피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집 사이사이 통로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더 자세히 엿보고 인사도 나눕니다. 이게 바로 국경없는의사회가 말하는 근접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 -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크리시

마지막 지점은 큰길 곁에 있는 배급처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팀들은 당일 활동 기록을 넘겨줍 니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조바이 어 박사가 곧장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에 따르면, 3회에 걸친 캠페인을 통해 쿠투팔 롱-발루크할리 메가캠프에서 총 340,000명의 아동들이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합 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크리시와 팀원들이 예방접종 캠페인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다. ©Natasha Lewer/MSF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가을 2018 MEDECINS SANS FRONTIERES KOREA | AUTUMN 2018

###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중해에 배를 띄운 까닭은



국경없는의사회와 SOS 메디테라네 공동팀이 나무 보트로 지중해를 건너는 사람들을 구조선으로 옮기고 있다. @Johannes Moths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국의 폭력과 치안 불안, 궁핍한 삶을 떠나 북아프리카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위태로운 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2018년,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한 사람은 1,500명이 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5년 이탈리아 난민 구조작전 '마레 노스트룸'(Mare Nostrum)이 종료된 후부터 지중해 중부에서 수색,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SOS 메디테라네'(SOS MEDITERRANEE)와 함께 아쿠아리우스호를 운영 중입니다. 이 구조선에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현장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인도주의 업무 담당자 등 국경없는의사회 스태프들이 승선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수십만 명이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전쟁, 박해와 가난으로부터 탈출해 떠나왔습니다. 출신 국가가 어디든, 이 망망대해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리 비아를 거쳐 온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리비아 에서 심각한 폭력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구조한 사람들 중에는 다수가 리비아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겪었 다고 전하고, 거의 모든 이들이 난민과 이주민을 겨냥해 구타, 성폭력, 살

인 등 극단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고국을 떠나서 사하라를 지나 리비아에서 살아남기까지 충격적인 일들을 숱하게 겪은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것만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 니다. 되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이 위 험한 루트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중해에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도주의 단체로서 우리는 남성, 여성, 아동 수천 명이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유럽을 향해 가다가 목숨을 잃 은 사람들의 수는 국경없는의사회가 전쟁지대에서 보던 사망자 수와 비 슷합니다.

유럽연합(EU)과 그 국경 기관은 밀입국 활동 저지를 통해 해상 사망자 수 를 줄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해상에서는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인도 주의 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는 수색과 구조 활동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안전한 이주 루트 대안만이 해상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생명을 살리고 단시일 내에 사망하는 사람 수를 줄 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 NGO 구조선들이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것은 아닌가요?

국제해상법에 따르면,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선장은 영해에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선들의 존재가 사람들을 바다 횡단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 람들은 유럽으로 가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루트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어 쩔 수 없이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15년 '마레 노스트룸' 프로그램이 중단 된 이후로 지중해를 건너는 사람은 2014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수색, 구조 전담 활동을 실시하는 NGO 선박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 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 지중해를 지날 것입니다.

인도적 행동은 위기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 NGO들의 해상 구조 활동이 밀수업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밀수업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제한적인 이민 정책 아래서 사람들의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국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유럽 진입로를 열어주는 것만이 밀수업자들을 몰아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진행하는 지중해 구조 활동은 모두 해양법, 해상인명 안전협약(SOLAS), 그 밖에 이탈리아·유럽 법규 등을 엄격히 따르고 있습 니다. 또한, 로마에 위치한 이탈리아 해양구조협력센터(MRCC)가 활동을 총괄해 국경없는의사회가 언제 어떻게 조난선에 대응할지 결정하고, 국 경없는의사회가 바다에서 구조한 사람들을 어디에 입항시킬지도 결정합 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구조한 모든 남성, 여성, 아동들을 항구에서 맞이 하는 것은 이탈리아 및 EU 국경 경비대입니다.

#### 구조선 안에서는 어떤 의료 활동이 이루어집니까?

구조 직후,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스태프는 즉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1차 분류를 실시합니다. 이로써 위급한 환자들은 구조선 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 처치로 안정을 되찾은 환자 에게 특수 치료가 필요한 경우, MRCC와 협력해 헬리콥터 혹은 쾌속정을 동원해 환자를 이송합니다. 긴급 치료가 필요치 않은 환자들은 외래진료 실에서 진찰을 받거나 갑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주로 치료하는 질병은 호흡기 감염, 피부 질환, 통증, 기타 경미한 질병들입니다. 의료진은 또한 과밀한 배에 타고 오면서 연료와 짠물이 뒤섞인 곳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돼 화상을 입 은 환자들도 주기적으로 치료합니다. 여성들, 특히 임산부 여성들은 선내 에서 활동하는 조산사의 전담 지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국경없는의사회 조산사들은 구조선 안에서 수차례 새 생명 탄생을 도왔습니다.

###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중해 중부에서 구조한 사람





마이 피닉스, 부르봉 아르고스, 디그니티1





부르봉 아르고스, 디그니티1, 아쿠아리우스





프루던스, 아쿠아리우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구조선으로 옮겨 탄 난민, 이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Kevin McElvaney

10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가을 2018 MEDECINS SANS FRONTIERES KOREA | AUTUMN 2018 1

### 이라크에서 만난 실향민들

호주 출신 심리학자 다이앤 한나는 이라크 모술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첫 현장 활동을 하면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다이앤은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아동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다이앤의 그림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글/그림 | 다이앤 한나

이라크 북부 카이라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모술 출신 피난민들을 위해 영양·정신건강 통합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현재 약 100명의 아동이 이동식 급식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5세 미만 아동들에게 영양 지원을 하면서 영양실조와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도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는 카야라 에어스트립 캠프에 1차 의료센터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 진료소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비감염성 질환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예방접종, 영양실조 아동 진료를 실시합니다. 주 6일 운영하는 이 의료센터는 하루 평균 150회의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모술을 떠나며

뒤로는 건물들이 불타고 있고 사방에서 총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아기를 안고 소지품을 챙겨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그러한 절박함과 절망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해(혹은 달)만이 그 고통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곳 문화 속에서는 공공연한 정서 표현이 쉽지 않으니까요.



#### 내게 돌아외

덥고 목마르고 지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팔에서 아들이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 자신이 무척 부끄러워지면서 연민이 생기는데, 이 느낌은 구호 활동가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마쳤을 때, 제 친구의 어린 딸아이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이앤 이모, 곰인형 눈물을 빼먹었어. 지금 곰인형도 너무 슬프단 말이야."



#### 플럼피넛의 힘

플럼피넛은 우리가 운영하는 카야라 외래환자 영양 프로그램에서 식욕 증진을 위해 처방하는 고칼로리 영양식입니다. 중증 급성 영양실조 치료는 단순히 음식과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의 건강이 양육자와 아기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 1주일 내내 기다리는 꼬마 숙녀

정신건강팀은 아동들이 그림 그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팀원들이 아이들에게 색연필, 물감, 종이를 나눠주고 나면, 이 어린 예술가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문 앞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첫날에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림을 가져올 정도로 그룹 활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아이들의 소중한 그림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중 '아미라'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보여 주려고, 제가 다른 캠프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림을 들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 기다리는 아기들

기온이 거의 55도까지 치솟을 때면(천막 안 기온은 더 높음),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어린 아기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팀은 카야라에서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 함께 온 아기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시설까지 오려고 물과 식량도 없이 뜨거운 모래 폭풍을 헤치고 장장 5km를 걸어왔습니다.



#### 산드라 의사와 나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은 치료식을 제공하면서 심리·사회적 지원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은 카야라에서 여성들과 아기들을 치료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외래환자 영양센터에서는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월 이상 아기들에게 영양실조 치료식(플럼피넛)을 제공했습니다. 정신건강팀에서는 개인·집단 심리치료, 아동 대상 활동, 행동 치료, 심리교육, 유아 마사지, 심리·사회적 지지 그룹 등을 운영했습니다.

12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 가을 2018 13 MEDECINS SANS FRONTIERES KOREA | AUTUMN 2018 13

# 예멘,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예멘 하이단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의 응급실 ©Agnes Varraine-Leca/MSF

예멘 내전은 현재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로, 유엔에 따르면 예멘 인구 3/4에 해당하는 2200만 명에게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폭력과 봉쇄로 인해 음식, 의약품, 깨끗한 물, 연료 부족으로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의료 체계의 붕괴로 콜레라, 디프테리아, 홍역과 같은 전염성 질병들이 창궐했으며, 비감염성 질병 치료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 환자도 늘고 있는데 특히 어린 아동들 사이에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팔로 얼굴을 반쯤 가린 모하마드는 하이단 병원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다리와 복부에 입은 유산탄 부상은 상태가 심각합니다. 모하마드는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오면 도로로 한 시간 반쯤 이동해 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모하마드는 사원에 금요 기도를 하러 가던 중 예멘 북부 마란에 위치한 후티 요새 인근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는데… 눈을 떠 보니 이 곳이더군요. 폭탄이었는지 로켓이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다에서 법원 서기로 일했던 모하마드는 전투원이 아닙니다. 그는 전투를 피해 사다를 탈출해서 지금은 예멘 수도 사나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하마드는 봉급을 받으려고 사다주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125만 명의예멘 공무원들처럼 모하마드 역시 2016년 9월이후로 전혀 봉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쿠쏘르(19세)는 도로 한쪽에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려 차를 타고 아들과 함께 하이단 병원에 왔습니다. 쿠쏘르의 아들 나빌은 이제 겨우 생후 6주인데, 최근 며칠간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쿠쏘르가 사는 곳은 매일 같이 공습이 벌어져교통편을 거의 구하지 못하고, 그나마 찾을 수있는 방편은 너무 비쌉니다. 쿠쏘르는 이렇게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마란에서 사람들이 밖을 다니기란 너무 어려워요. 폭격이 너무 심해서 구할 수 있 는 차량이 거의 없고요. 있다고 해도 비용을 지 불할 돈이 없어요."

의료 지원이 필요한 예멘 사람들에게 있어 교통비는 여전히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나빌은 병원에 꼭 와야 했고, 상태가 위독해 앞으로 병 원에서 1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담요에 싸인 나빌은 별도로 산소를 공급받고 왼쪽 손에는 정맥 주사가 꽂혀 있습니다. 나빌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가족들은 하이단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까지 오는 데 1,000 예멘 리알(한화 약 4,200원)이 들었습니다. 힘 겹게 흥정하여 깎은 가격입니다. 현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구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연료비를 따지면 최고 15,000리알까지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의 여파는 물가입니다. 연료비를 비롯한 예멘 물가는 2015년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멘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스·휘발유 가격은 지난 3년 사이에두 배나 올랐고, 밀가루 가격은 절반 이상 올랐습니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현재, 집을 떠나 기본적인 필요 사항조차 구하지 못한 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200만 명에 이릅니다.

예멘에서 의료를 지원하는 극소수 단체 중 하나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예멘 내 11개 주에 있는 의료 시설 13곳에서 활동하고, 그 외 병원 및 보건소 20여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0명이 넘는 현지 스태프와 90여 명의 국제 구호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멘은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곳입니다. 예멘에서 폭력과 치료 가능한 질병, 그 외식량, 물, 거처 부족으로 위협받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후원기업 소식

국경없는의사회는 정치색, 종교색 없이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료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95% 이상의 재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해 주시는 기업들의 후원과 참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유니시티코리아 시리아 난민 위한 후원금 전달

유니시티코리아는 지난 7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을 통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2017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를 위해 모자보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금은 약 54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레바논 베카 밸리 지역의 모자보건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이펙트미디어 구호(95) 트럭 차량광고 기부

이펙트미디어는 지난 3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주의 의료 구호 활동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택배 차량 광고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 이펙트미디어가 제공한 차량 광고는 국경없는의사회 구호(95) 트럭이 되어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국경없는의사회를 알렸습니다.



#### 펠리스그룹 커피 상품 통한 공익 연계 마케팅 진행

펠리스그룹은 올 4월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공익 연계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커피 한 잔이 전 세계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페 펠리스 아메리카노' 한 박스당 홍역 백신 1개 가격의 금액을 국경없는의사회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 기업 후원 및 파트너십 안내

국경없는의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독립성입니다. 전체 기금의 95% 이상은 개인 후원, 기업 후원과 같은 민간 기부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세계 곳곳의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참여 방법

#### 기금 후원

#### 회사의 이름으로 특정 금액을 일시 후원 혹은 정기 후원

#### 공익 연계 마케팅

####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 혹은 국경없는의사회를 위한 특별 에디션 제작 및 판매 등을 통해 후원

#### 임직원 참여

급여 끝전 기부, 연말 캠페인 참여, 연말 나눔 캠페인, 매칭 기프트 등을 통해 후원

\* 국경없는의사회가 추구하는 인도적 목표 및 의료적 가치와 상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배, 술, 무기제조업, 채굴산업, 제약업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후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이메일 | corporate@seoul.msf.org 전화번호 | 02-3703-3573

#### 후원자 이야기

## 세상을 치료하는 '의미 있는 날의 기부' 기념기부

의미 있는 날을 맞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기억하며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도움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3년 전 서울로 여행 왔던 프랑스 청년과 아프리카 봉사 후 고향으로 돌아온 한국 여성이 우연히 만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와 서로를 배려하는 용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전쟁 없는 나라, 유복한 가정)을 받고 살아가는지 다시금 깨닫고는 합니다. 9월 2일은 우리 부부의 결혼 1주년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호화로운 여행이나 멋들어진 선물, 값비싼 레스토랑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말없이 주어진 것들에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것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을 보태어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기념기부 고승우, 리오넬 후원자님



"올해 사랑하는 어머니가 오랜 지병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홀로 5남매를 키우시며 고생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 이웃들에게 이것저것 나누어 주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해하실 어머니를 기리며, 늘 베풀며 살고자 노력하겠다고 결심해 봅니다."

추모기부 김상열 후원자님

"걸그룹 마마무 데뷔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없는의사회 기념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마무의 이름으로 기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직 고통받고 있는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많은 팬들도, 이 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더 많은 선행에 동참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모이고 커지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마무 중국 팬클럽 '무무차이나'

#### 기념기부 FAQ

- Q 어떤 기념기부들이 있나요?
- A 탄생/백일, 돌, 생일, 결혼, 추모, 졸업, 취업 등 다양한 기념기부가 가능합니다. 그 외 나만의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면 '특별기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A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상단의 '후원하기'(www.donate.msf.or.kr) 버튼 클릭 후 '일시후원' 선택 > '기념기부' > 기념기부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은 후원자센터(02-3703-3555)를 통해 전화로도 후원참여가 가능합니다.
- Q 후원 증서 또는 청첩장/초대장 등에 활용할 후원인증파일을 받을 수 있나요?
- A 기념기부 후원 증서는 5만 원 이상 기부해 주신 후원자님께 제공해 드립니다. 청첩장이나 초대장에 넣을 후원인증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02-3703-3554) 또는 이메일(austin.mun@seoul.msf.org)로 신청해주시면 후원 금액과 상관없이 제공해 드립니다.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이벤트&캠페인



### 국경없는영화제 2018

국경없는의사회의 두 번째 영화제, '국경없는영화제 2018'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호 현장 최전선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고통을 증언하고 세계 곳곳의 소외된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증언 활동'은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주의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는 11월 23-25일 서울극장에서 열리는 국경없는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7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경없는영화제 2018 공식 사이트 www.msf.or.kr/films2018

### 국경을 넘는 구호 활동가, 다음은 당신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가가 된다는 것은 위험에 처한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구호 현장의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구호 활동가를 직접 채용하고 파견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요건과 채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www.msf.or.kr/campaigns/tothefield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쿠투팔롱 난민캠프 내 진료소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와 아버지 ©Patrick Rohr